

### 순수함 일깨우는 자연



Small Garden

## 아트광주 추진 난항

올해 5회째를 맞는 광주국제아트페어가 예산이 제대로 확대되지 않아 행사 준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광주국제아트페어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시가 올해 5회째를 맞는 광주국제아트페어 '아트광주'를 4개월여 앞두고 아직까지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해 행사 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행사 성공개최를 위해 손을 잡아야 할 한국미협과 광주미협이 주관단체를 놓고 불협화음을 내고 있어 지역 미술계에서는 자칫 반쪽짜리 행사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모두 3억원의 예산을 들여 오는 8월29일부터 9월2일까지(예정) 5일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14 광주국제아트페어'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지만 광주시는 전체 예산 3억원 가운데 시비 2억1000만원을 제외하고는 국비(9000만원)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는 광주시가 국보 확보에 안이하게 대처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제 행사 등에 예산을 지원해 주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기금이 올해부터 '대표적 공연예술제 관광자원화 사업 공모'로 바뀌면서 지원 대상을 공연 관련 행사로 한정했다. 즉, 미술·전시 행사인 '아트광주'는 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 셈이다. 하지만 광주시는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공모 사업에 신청, 떨어졌다. 불 보듯 뻔한 결과였다.

광주시는 추경에 '아트광주' 예산을 반영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지방선거 등을 이유로 8~9월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 행사 개최 전까지 예산확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 예산확보 안돼

전체 3억원 중 국비 9000만원 불발 ... 市 안이한 대처

### 개최시기 미정

8월29일~9월2일 예정 ... 정부 행사로 10월 연기 가능

### 미협 불협화음

한국·광주미협, 주관단체 놓고 잡음 ... 반쪽 행사 우려

가능한 상황이다.

또 '아트광주' 개최 시기도 확정하지 못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아트광주가 열리는 시기에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가 예정된 기간에 열릴 경우 장소 대관 등 문제를 이유로 '아트광주'를 10월 말에 개최한다는 생각이다. 그동안 아트광주는 광주비엔날레, 광주디자인비엔날레와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 비엔날레 개막 전에 행사를 개최해왔다.

'아트광주' 주관 기관을 놓고도 한국미협과 광주미협 사이에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광주시는 그동안 광주비엔날레재단과 광

주문화재단이 주관해오던 '아트광주'를 지난해부터 한국미협에 위탁해 진행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 1월 한국미협과 '아트광주' 추진을 위한 협약을 이미 체결, 한국미협은 집행위원장을 선정하고 사무국을 꾸려 행사를 준비해오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지역 미술인들의 의견이 사실상 배제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3월 새 집행부를 꾸린 광주미협은 최근까지 '아트광주' 추진과 관련 국내·외 사례들을 분석, 광주국제아트페어의 방향과 정체성을 연구해왔다. 지난해 한국미협이 행사를 주관하기는 했지만 광주미협 회장이 행사 집행위원장을 맡으면서 외부에

는 한국미협과 광주미협이 공동으로 행사를 준비하는 것처럼 비친 데 따른 것이다.

광주미협 관계자는 "광주에서 열리는 미술인들의 축제 자체를 전적으로 서울에 맡기겠다는 광주시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다"며 "광주시가 한국미협과 올해 행사 관련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지역 미술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면 이 같은 사태는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미협 관계자는 "광주에서 그동안 행사를 주관했던 단체들이 역부족이어서 지난해부터 한국미협에 행사를 맡긴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광주미협과 협조체제로 운영할 의사는 있지만 주관 단체에 이의를 올려달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지역 원로 미술인들은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한국미협과 광주미협이 손잡고 행사를 치러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광주에서 열리는 국제행사에 지역 미술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다 성공적인 행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이런 상황에서 '아트광주' 사무실만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광주문화재단이 '아트광주' 공동주관처에 이름을 올린 것은 광주시의 폄하라는 지적이다. 광주시가 광주에서 열리는 행사 자체를 타지역 단체에 맡기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광주문화재단 이름을 주관단체에 올렸다는 것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DS갤러리 23일까지 최재영전

아이리스, 칸나, 파키라 등 형형색색의 꽃과 식물이 화폭을 가득 메운다. 화폭 속 꽃과 식물은 바람에 춤을 추는 것만 같다. 익숙한 캔버스 속 자연이미지들은 낯선 모습으로 다가온다. 관람객들이 경험한 자연과는 또 다른 상상의 경계선상에 있는 풍경을 선사한다.

아이의 눈을 통해 각박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순수함을 일깨워주고 있는 서양화가 최재영씨가 오는 23일까지 DS갤러리에서 '작은 정원'을 주제로 개인전을 연다.

작가는 봄날의 따뜻한 생명력이 가득한 1호부터 10호 크기의 소품 40여점을 선보인다.

이번 작품들은 그가 어린아이의 꿈과 희망을 주제로 작품을 제작해 오면서 틈틈이 제작한 소품들이다. 전통적인 회화표현에서 탈피해 형태와 색채를 돋보이게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조선대 미술대학과 워싱턴 아트칼리지를 졸업한 최씨는 독일 뮌헨과 베를린, 중국 북경, 미국 뉴욕 등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문의 062-233-3919. /김경민기자 kki@

### 청춘의 고민, 노래로 치유

#### 씨소뮤지컬컴퍼니 11·12일 뮤지컬 갈라 콘서트

청춘들의 고민, 노래로 치유합니다.

광주에서 활동하는 씨소뮤지컬컴퍼니가 11일 오후 7시30분, 12일 오후 4시·7시 광주콘텐츠포럼 지하원센터 영상관(옛KBS광주방송총국)에서 뮤지컬 갈라 콘서트 '청춘 라디오-위로가 필요한 청춘을 위하여'를 공연한다.

이번 무대는 '모차르트', '싱글즈', '빨래', '그리스', '아이러브유', '위키드' 등 유명 뮤지컬 명곡들을 지역 청춘들의 고민 사연과 함께 만나는 라디오 형식의 공연이다. '청춘 라디오'는 지난 한 달간 공모를 통해 선정된 광주 지역 청춘들

의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뮤지컬 노래를 통해 공감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

티켓 가격 1만5000원. 인터파크티켓 홈페이지(http://ticket.interpark.com)나 연극촌 홈페이지(http://cafe.daum.net/drama2003)를 통해 예매 가능하다. 문의 010-7349-992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천원의 낭만' 락썬볼래? 14일 광주문화예술포럼서

'행복한 문화충전 천원의 낭만' 4월 행사가 14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포럼 소극장에서 열린다.

'락썬볼래?'라는 타이틀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에서는 4인조 여성그룹 'Walking After U'가 무대를 꾸민다.

지아·헤인·씨니·아짱으로 구성된 'Walking After U'는 흥대에서 인기를 모은 '러버더키'와 '탑밴드 시즌 2'에 출연했던 '스윙스'가 결합해 만든 밴드다.

이번 공연에서는 '자꾸 눈이 가', '밤비', '청개구리' 등 가요와 'Knocking On Heaven's Door' 등 팝송을 선사한다.

천원의 낭만은 매일 둘째주 월요일 열린다. 문의 062-226-203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실연녀의 복수극 ... 'S다이어리' 연극으로

#### 총장로 기분좋은극장 27일까지

김선아·김수호·공유 등이 출연했던 영화 'S다이어리'가 연극으로 돌아왔다.

지난 사랑에 마음을 다친 여자가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들에게 통렬한 복수를 하며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그린 로맨틱 코미디 'S다이어리'가 27일까지 총장로 기분좋은극장에서 공연된다. 화~금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4시, 7시, 일요일 오후 3시, 6시. 월요일 공연 없음.

잡지사 기자인 진희는 유명 원예사와 인터뷰를 하던 중 상대방의 야한 농담과 행동에 격분해 상해를 입힌다. 원예사와의 합의를 시도하던 친구 동순은 진희의 욕하는 성격이 갖게 된 원인이자 할 수 있는 과거 연애사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한다. 과연 진희에게는 어



떤 과거가 있었던 것일까?

동명의 영화처럼 주인공 진희는 세 명의 남자친구에게 복수를 하고, 동순이 진희를 돕는다. 20, 30대들의 사랑과 이별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티켓 가격 전석 3만원, 15세 이상 관람가. 예매 및 문의 1600-668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창' 28호 나와

#### '이특법' 각계 주장 담아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사장 백수인)이 발행하는 문화담론 계간지 '창' 28호가 나왔다.

이번호에서는 특집기획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특법)과 관련, 정부의 개정안과 박해자 의원이 발의한 대체 입법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 박해자 국회의원의 입법에 대한 소개와 주장, 김하림 범시민연석회의 집행위원장 등 지역의 다양한 주장을 담았다.

또 '문화인 탐구생활'에서는 토론회 등 문화기획을 하고 있는 스토리박스 강수훈 대표와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이금례씨를 현직기자

가 발굴, 조명했다. '문화현장' 코너에서는 국립나주박물관과 광주극장에 대해 소개한다.

'문화특보'에서는 최근 자신의 사색을 시문학관으로 만든 법대순 시인이 쓴 '나의 시적 본질인 야성과 기(氣)', 한희원 화가가 말하는 '시인과 함께 하는 싹틔움 문화', 문화단체 '청년문화허브 무한' 등이 소개된다. '창'은 홈페이지(www.rcf.or.kr)에서도 볼 수 있다. /김경민기자 kki@

**보약, 홍삼은**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  
·마음에 평안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120,000원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